여학우 대중과 함께 여성민중과 함께 내달리자!

전여대협 9,10월 사업계획서

0. 들어가며

2천년 여름방학은 방학이라는 시기적 조건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사업과 투쟁이 제기된 달이었습니다. 전여대협 출범식 이후 출범식의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농활 기획로 이어지는 여성민중과의 연대 사업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조국통일투쟁에 50만 여학우 2천만 여성민중이 떨쳐 일어설 것을 요구받는 7,8월이었습니다. 한편 기간 사업과 투쟁을 벌이면서 여학생회 주위에 망라된 여학일꾼 및 새내기들과 집중적인 학습과 실천활동을 계획하면서 자주적 여학생운동 일꾼으로 단련시키는 과제 또한 부여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농활 기획 전여대협 수련회 그리고 지역 통일축전, 여성통일한마당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여학일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각각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적인 방학을 단위에서 보다 명확하게 단위의 활동은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총화하며 성과와 한계를 밝혀내고 9,10월을 힘차게 살아갈 것을 결의합시다.

1. 정세

전체 정세는 한총련 사업계획서를 읽고 토론합시다.
여성정세는 신문기사 노크 자료를 제공합니다.

2. 시기규정

1)통일투쟁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며 여성민중을 통일투쟁의 진정한 주인주체로 만드는 시기
2)전민특위, 일본군'위안부' 문제, 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의 문제를 총집중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시기
3)대중사업이 활발한 시기-대중사업 속에서 모든 것을 녹여내어 풀어냅시다.
4)핵심을 더욱 발굴 단련하는 시기

3. 조직사상영역의 과제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사활을 걸고 제기하는 혁/신/운/동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혁신운동 제기배경
상반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다그쳐가야하는 것은 바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입니다.
몇몇의 여학일꾼들만으로 준비되고 풀어지는 사업과 투쟁이 아니라 여학생회가 포괄하고 있는 여학우들을 주인주체로 세워가며 여학생회조직을 강화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많은 투쟁의 모범을 세워갔던 전여대협 여학일꾼들이지만 여학우들의 심장을 움켜쥐는데 아직 부족한점이 사실이며 이는 올해 선거공간을 통해 냉철하게 평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극대화시켜내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과 투쟁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해들어가는데 있어서 변화를 일으킵시다.

1.여학생운동의 주체 여학우를 중심으로한 대중관을 확고히 세우자.
여학생회의 주인은 여학우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실지로 이를 가슴깊이 각인하며 사업과 투쟁을 벌여내고 있는지 반문해 보자. 여학우를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학우들의 의식 흐름을 파악하고 여학우들의 정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학우들을 만나고 여학우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며 현재의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도로는
자기 대중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강의실 여학생휴게실, 여학생회장실 및 여학우 기숙사등 여학우들의 거점을 자주방문하고 의견을 개진수렴 받읍시다.-예전 선거 때처럼
통신 신문 등 여론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공간을 적극 활용합시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활동의 방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화하고(여학생회 3대 혁신과제 하루에 몇 명 만나기 및 등등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시다.) 점검 해들어갑시다.
점검판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총화합시다.
-대표자부터 모범을 세우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2.여성문제에 대하여 실력을 갖춘 여학생일꾼이 되어야 한다.
학우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의식흐름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운동의 대중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학우들이 겪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사색하고 그속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문제에 대하여 통달하고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도로는
여성문제에 대한 토론 학습을 강화합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올 1년 동안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중요성에 대하여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습커리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많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단 한 장이라도 깊이 있게 토론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문제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많이 마련합시다.
책을 통해서 느끼는 여성문제도 있지만 실지로 우리 삶의 곳곳에 여성문제를 느낄 수 있는 장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학내에서 뿐 아니라 실지로 졸업한 선배들이 사회에서 겪는 여성문제. 그리고 결혼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육아 및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여성문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여성문제등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의 여성민중의 현실을 뼈져리게 느낄 많은 기회가 있다. 생생한 현장학습을 기획하여 봅시다.

방도을 잘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학습이든 실천활동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체입니다. 학습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악스럽게 이를 밀고 나갈 주체가 있어야 이것이 실천으로 담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습을 위하여서는 학습을 준비하고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사람이 끈질기게 진행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기로 한 학습은 한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3.정말 여학우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내자.
총여학생회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1년에 제출됩니다. 많지 않은 수로 대중사업을 펼쳐내다보니 준비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조성되고 미흡함들로 대중행사 진행 시 미숙함도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역량이 크지 않다 보니 소규모 내지는 일꾼중심의 사업이 많습니다. 현실역량이 되지 않는데 무리한 큰 규모의 사업이나, 기층여학일꾼들부터 총여 두리로 묶어내는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학우들의 선거에 의해 뽑힌 회장 부회장이며 대중조직의 일꾼이라

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과투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점의 문제입니다.

방도로는
화장실 선전, 여학생휴게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악합시다.
대의체계의 발동에 관심을 갖읍시다.
-총여학생회 자체역량 뿐 아니라 대의체계를 통하여 여학생회 사업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자 그저 중앙에 우리 사업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회장님들을 만나서 정치사업하는 노력을 보입시다.
소수지만 여학일꾼들부터 똘똘 뭉쳐 사업을 해들어갑시다.
큰그림과 구호하나 순서 하나하나 여학우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꼼꼼히 짜들어갑시다.
사업의 투쟁의 주동성과 과감성을 견지합시다.

이를 위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과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불안과 패배감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우들이 모일까 이 숫자로 될 할 수 있겠어 하는 이런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업과 투쟁을 한 만큼 성과이다라는 낙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해들어갑시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 객관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재적 상황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나아졌는지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업과 투쟁에 임하도록 합시다.

■여학생회 조직건설-앞으로 10년을 좌우합니다.
10월 누구나 다 이맘때면 선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학생회에 핵심의 부족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여학생회의 경우는 특히 다음대를 책임질 여학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의 인고의 과정은 1년을 통틀어 가장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여학생회 조직건설의 중요성은 사람이 모이고 조직적 힘으로 단결되었을 때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깊숙이 뿌리 박힌 여성문제를 풀어내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힘이 필요하며 문제의 당사자인 여학우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모여 노력할 때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를 모아낼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여학생회 조직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고 투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속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반기 선거를 통한 여학생회 조직건설을 큰 목표로 두고 진행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선거준비를 일찍 합시다.
상반기총화를 승리적이고 내실있게 진행합시다.
-일꾼하나하나의 세세하고 꼼꼼한 총화
조직건설에 있어서 간담회 진행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기풍으로 선거에 임합시다.

4. 대중투쟁

1. 자주교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온 민족은 통일의 열망에 사로잡혀 들떠있습니다. 8월 통일대축전만 보아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잡고 물어도 통일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루어진 이산가족의 만남은 온 겨레를 눈물 바다에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젼을 보는 것도 신문을 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그 때마다 눈물이 나와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통일의 열망은 온 겨레를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국이 분단되어 있으므로 해서 여성민중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 가슴이 알싸해집니다.
그렇지만 여성민중 또한 통일의 주체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관철 및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한 2000년 여성통일한마당은 그것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없습니다. 여성민중을 진정으로 통일의 주체로 그래서 자기 삶의 주체로 시게 하는데 이제 그 통일투쟁의 성과들을 이어가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자주교류를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다남의 여성과 이북의 여성들 5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한 민족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공통성과 여성이기에 겪는 고통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여성민중들을 더욱 투쟁에로 일떠 나서게 하여 자기 삶의 주체 뿐만 아니라 조국의 통일과 여성해방 인간해방세상을 만들어갑시다.

1)자주교류의 내용
①여학우대중으로부터 들읍시다.
학우들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학우들을 만나며 학우들로부터 찾아냅시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학우들로부터 들읍시다.
②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합시다.
편지교류 및 이북 여성과의 펜팔 친구 만들기 등.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더욱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학우들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③각급 단위 학생회(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과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자주교류의 내용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합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학과에서 자주교류를 진행하는데 역사탐방을 한다면 그 속에서 여성의 관점을 도입하여 여성의 역사와 삶은 어떠했는지 교류의 내용을 잡고 주체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④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북의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제를 드리겠습니다.
북에 있는 위안소 답사 투쟁, 남북학생토론회, 3자 연대 수요집회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여성시설 방문, 탁아시설과 탁아제도 알아보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북의 상황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은 총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여도 좋습니다.

2)방도
①먼저 주체를 세웁시다.
각 대학에서 단대 여학생회가 있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총여학생회에서 주체를 마련합시다. 겸임을 하는 식으로라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내용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지도하며 단위에 주체를 마련하거나 총여학생회 차원의 자주교류단을 꾸려 함께 자주교류 사업을 진행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②합법적이고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진행합시다.
③예전에 이북에서 왔던 편지들을 모아 선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자주교류단 모집 사업 진행
④자주교류 전진대회: 8월 말 9월 초
⑤자주교류의 밤
3)시기별 흐름
~9/8 자주교류 전진대회, 자주교류 준비기, 자주교류단 모집 사업
9/9~9/16 통일부 접수 투쟁
9/18~9/30 자주교류단 지속적인 모집
10/1~10/7 '자주교류의 밤' 성사 투쟁
10/8~11/3 2차 자주교류 사업

1-2.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관철 투쟁

'6.15 남북공동선언 관철 및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한 2000년 여성통일한마당'의 성과를 이어 그날의 공동결의안을 다시 여성단체를 만나서 합의하도록 조직하여 신문광고나 선전 투쟁으로 이어갈 것입니

다.

2. 기지촌 문제, 주한미군 범죄를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

일본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공분화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미국이나 일본의 태도는 올해 당상 우리 나라에서 김성회 씨가 살해되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명백한 해결을 정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의 문제와 한미행정협정 그리고 이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과 여성을 성적도구화하는 사회구조와 통념이 너무 심각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지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미군에 의한 우리나라의 사회정세정치군사적 억압과 미군으로 인해 더욱 무분별해진 성문화, 그 속에서 짓밟히는 여성의 인권 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다 반미투쟁이 총체화되고 사회구조 또한 더욱 구조적으로 변화해가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서 이 투쟁은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행정협정을 개정 폐기하는 투쟁,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투쟁, 기지촌 여성의 문제를 삶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속에서 투쟁을 계획하는 등 총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미투쟁과 함께 흐름을 같이 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대학리 등의 투쟁에서도 여학우들을 적극 결합시켜 반미투쟁으로 나서도록 하여 미국의 존재와 여성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의식화

①미군범죄에 대하여

②주한미군으로 인해 퇴폐향락적이 된 성문화에 대하여

③한미행정협정에 대하여

④다양한 반미의식화

2)방도

①전민특위 산하 전여대협 금요마당 진행

매주 금요일마다 미군문제, 기지촌 문제를 함께 학우들과 시민들과 얘기한 것입니다. 방도는 다양할 것입니다. 선전전 영화제 강연회 등. 그리고 여성단체들과 전민특위를 꾸려보자고 했었고 2학기에 진행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전전이나 행사를 여성단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움터와 연계하여 기지촌활동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선전 또한 함께 진행하며 새움터에서 판매하는 여러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좋을 듯 합니다.

②이정숙 씨(9월 7일 추모일), 윤금이 씨(10월 28일 추모일) 추모사업

추모기간 설정

9/4~9/9 이정숙 씨 추모기간

10/23~10/29 윤금이 씨 추모기간

추모선전 진행(현수막, 대자보, 분향소)

추모 리본 달기, 나누어주기 : 강의실 선전, 금요선전전, 추모행사 때

③윤금이씨 추모 및 반미행동의 날 : 10월 28일

지역여대협, 지역총련 차원의 집회 진행

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시내 거점에서 윤금이 씨 추모내용과 반미투쟁의 내용으로 여성행동을 합시다.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며 선전전이나 집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해봅시다.

사전에 여성단체와 준비위를 미리 꾸려 준비에서부터 같이 하도록 합시다.-여성통일한마당의 성과를 이어갑시다.

④한미행정협정 개정폐기 투쟁

백악관에 항의메일 보내기

서명운동 진행: 국제전범재판소 제소를 위한 서명운동

여성단체 공동성명서 합의 서명운동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1)의식화

①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②국제법정에 대하여

③이북의 일본군'위안부' 해결 투쟁에 대하여

2)방도

①전국 순회 수요집회

정대협에서 주관하는 서울에서의 수요집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시민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서울과 지역의 동시 수요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일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중심기조로 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학우들이 할머님들에 대한 의리로 먼저 전여대협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결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민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거점을 형성하고 선전전이나 집회, 행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대협에서 할머님들의 사진이나 자료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할 것입니다.

8/30	9/6	9/20	9/27	10/4	10/11	10/18	10/25	11/1	11/8	11/15	11/22	11/29
서울 시작	제주	경남	전국	부산	대구 경북	전북	광주 전남	수원	인천	강원	충청	아시아 피해국 동시

②대학별 수요선전전

작년에 진행했었던 수요선전전을 2학기 들어 계속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법성을 일러내고 국제법성을 학우들과 함의하는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도록 합시다. 매주 거점을 잡고 어떠한 방식이라도 상관이 없으니 대중적으로 학우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금 운동을 함께 진행합시다. 강의실 선전을 진행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서명을 진행합시다.

서명용지는 정대협에서 제출되는 내용과 같이 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③9월 27일은 전국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국순회수요집회를 하는 도중 전국 동시 수요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욱 극대화해서 알려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학교 언론사, 지역 신문 방송사 등을 잘 조직하여 여론을 불러일으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기상 대동풀이와 겹치는 대학도 있을 것입니다. 형식은 집회가 아니어도 좋으니 다양한 방식으로 대동풀이 기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 계획 세운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④자주교류를 통한 해결

앞서 말한 대로 자주교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민족 대단결 의식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합시다.

⑤전국 순회 수요집회 알림 기자회견

수요집회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입니다. 각 대학 언론사와 일간지, 텔레비전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며 각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의 언론사와 지역의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조직합시다.

⑥대학별 학생법정을 준비합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모의 학생법정을 통해 이후 전범법정의 흐름까지 이어가도록 합시다. 1학기 때 진행했던 단위나 학생법정의 내용들을 참고해 진행하면 더 수월할 것입니다. 1학기 때 진행했던 단위는 종화바랍니다.

4. 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 투쟁

1)의식화
①성폭력이란
②성폭력의 심각성
③여성과 남성의 성인식의 차이 등
④성폭력 추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2)시기별 흐름
8/28~9/2 : 전국의 대학 성폭력 학칙 모음 사업, 각 대학으로 총화, 학내 의식화 사업,
9/3~9/16 공통의 학칙안 마련을 위한 전국 사이버 토론, 전국 공통안 마련, 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 기자회견, 대학본부 및 교육부에 제출, 전학대회 등에서 결의안 채택 등
9/18~ 학내의 의식화 사업 계속 진행
3)더불어 성문화 운동
성강연회, 성인식 설문조사 발표, 여성학 강의 개설 노력, 성문화혁신운동-음담패설 않기 등

5. 개강사업
1)개강 선전 :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들을 진행합시다. 개강현수막, 대자보, 개강 신문이나 유인물, 화장실 선전물(방중 사업 총화와 9,10월의 계획이 녹아난 선전물)
2)개강 인사 : 정후문, 강의실, 도서관 등
3)개강잔치 및 행사
4)여학생휴게실 등 자치 공간 단장하기 : 학우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지요!!

6. 학교별 대동제
2학기 대중사업의 꽃이랄 수 있으며 여학우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니다. 대중사업의 정형이나 일꾼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무중심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고 바쁘기는 엄청 바빴는데 학우들의 참여를 많이 보장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사업의 연장으로 일상 사업이 총화되는 장으로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1)핵심 투쟁과제가 다 녹아나는 총여학생회 대동풀이를 만들어봅시다.
자주교류, 기지촌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에 대한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수금 선전전과 의식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동풀이를 준비하는 것과 일상사업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같이 진행해 들어갑시다. 대동풀이에 대한 계획과 구도는 그렇다면 9,10월 계획을 짜면서 함께 짜지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2)그야말로 대중사업으로.
여학우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참신한 방법들을 고안해봅시다. 그리고 선전은 아주 기본입니다. 선전물을 보고는 학우들이 오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성심 성의껏 해야할 기본적인 것들을 꼭 진행합시다.
3)자주교류, 기지촌 문제 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을 위한 발야규대회를 진행합시다.
1학기 때 제출했다가 2학기로 연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에 붙은 제목은 더 길지만 더욱 재미나고 힘이 나는 발야구대회가 되도록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 또한 개강하면서 함께 진행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핵심일꾼을 주체로 합시다.

5. 대중 의식화 조직화 방도

1)사거리를 만듭시다.(학내 거점에 마련하고 이동하며 선전물을 설치합시다)
①반미(기지촌) 거리
②일본군 '위안부' 거리
③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 거리
④자주교류(이북여성 바로 알기 등) 거리
2)선전
①강의실 찾아가기
-월화는 수금마당을 알리며 한주의 계획을 알리는 강의실 선전
-항상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며
②거점 선전
-학교의 중심지에 사거리 선전과 여학생회실 근처와 여학생휴게실 거점 선전
③화장실 선전
-매주 월요일에는 화장실에 앉았을 때 새로운 내용의 화장실 선전물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각 단위별로 화장실 선전 주체를 마련하면 좋습니다.
-주 1회 화장실 선전물 만들기.
-내용으로는 총여 1주 계획을 포함하고 사업과 투쟁 과제에 대한 내용
④전공 강의실 혹은 교양 강의실에 총여 선전판 마련 사업
-강의실 안이 아니라 문위나 문 옆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간단하게 예쁜 색지에 화장실 선전물 붙일 수 있는 크기로.
3)유인물 작업
-수금 선전전에 이용할 유인물 만들기
-대학별로 만들기가 어렵다면 지역여대협별로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에서 공동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4)자주교류단을 각 단위별로 꾸려냅시다
-먼저 주체 마련을 합시다.(겸임을 하는 식으로가 많을 듯 합니다.)
-여학생회 단위나 여학생운동 단위 소모임의 경우 자주교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대중적으로 자주교류단을 꾸립시다.
-편지교류단이나 위안소 답사 투쟁단 등입니다.

6. 주별 흐름

월 : 화장실 선전물, 강의실 선전물 교체, 강의실 선전(월~금)
화 : 유인물 제작, 기숙사 방문
수 : 소요선전전
목 : 집단 학습
금 : 금요선전전
토일 : 한 주 총화 및 다음 주 계획, 준비

7.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1	2	자주교류전전대회
3	4	5	6	7이정숙씨 추모일	8	9	전국주요집회시작 이정숙씨추모주간
10	11	12추석	13	14	15	16	자주교류방북신청 공동학력마련
17	18	19	20	21	22	23	자교단 모집
24	25	26	27전국동시 수요집회	28	29	30	
10/1	2	3민족의 날	4	5	6자주교류의 밤	7	자주교류의 밤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윤금이씨 추모일	윤금이씨추모주간 반미여성행동의날
29	30	31	11/1	2	3	4	
주 준비	선전물교체 강의실선전	유인물제작 기숙사선전	수요집회 선전전	집단학습	금요선전전	주총화,계획	주별로